앗! 배가,
배가 없어
졌어요.
뭐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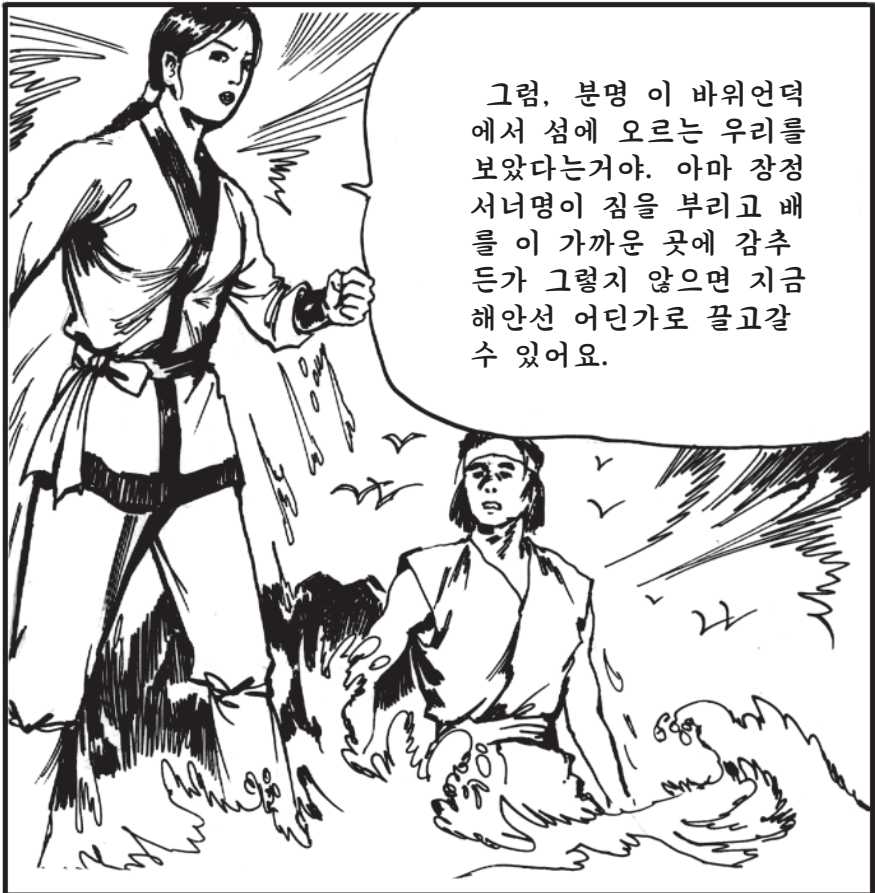
오빠 여기 가
까이 있었는데
아무 기척도
못들었어요?

그걸 나한테 물어?
파도소리에 무슨 소
릴 듣는다는거냐?
그래, 배를 매여두
긴 매두었어?

저 바위에 바줄 맸던 자리가 보이지요?
그럼, 그 배가 물속으로 사라졌니, 하늘로 올라갔니?
풀썩
아유, 기차라,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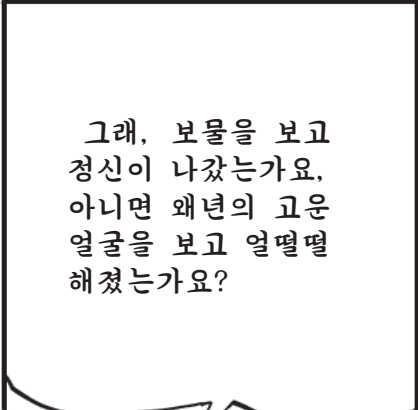
흐흑

후-

오빠, 생각해보자요. 우리가 이 섬에 배를 댈 때 바다에 다른 정황은 없었지요?

그럼, 분명 이 바위언덕에서 섬에 오르는 우리를 보았다는거야. 아마 장정서너명이 짐을 부리고 배를 이 가까운 곳에 감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안선 어딘가로 끌고갈수 있어요.

작지 않은 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갈 장사는 없는거구 분명 배는 해안선에 있어요.

섬둘레에 들쑹날쑹 바위굽이가 몇백몇천개도 되겠는데 어떻게 찾겠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오빠, 아까부터 하는 소릴 보니 뭔가 좀 달라진것 같아요.

뭐가
달라져?
그래, 보물을 보고
정신이 나갔는가요,
아니면 왜년의 고운
얼굴을 보고 얼떨떨
해졌는가요?
뭐라구?!

됐다. 그만하
자. 나도 너
를 따라나서고
싶다만 상처의
동통이 심해서
그랬으니 리해
해라.

오빠, 용서해요. 제가
미처… 그럼 오빤 여기
있으면서 주위를 감시해줘
요. 그렇게 하지요?

어서 갔다와!

그럼 돌아 보고 오겠어요.

엉?!

오빠! 배가 있어요.
어서 여기로 와요.

배가 있다구?

빈배로구나.
예.

그러니 보물짐은 여기서 날라갔을거 예요.

내가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정말 귀신같은 놈들이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말짱 날라갔으니말이야.
여기서부터 흔적을 찾아 따라가느라면 얼마든지 보물을 찾을수 있을것 같아요.

이것봐요. 바위이끼에 발이 미끄러져 생긴 흔적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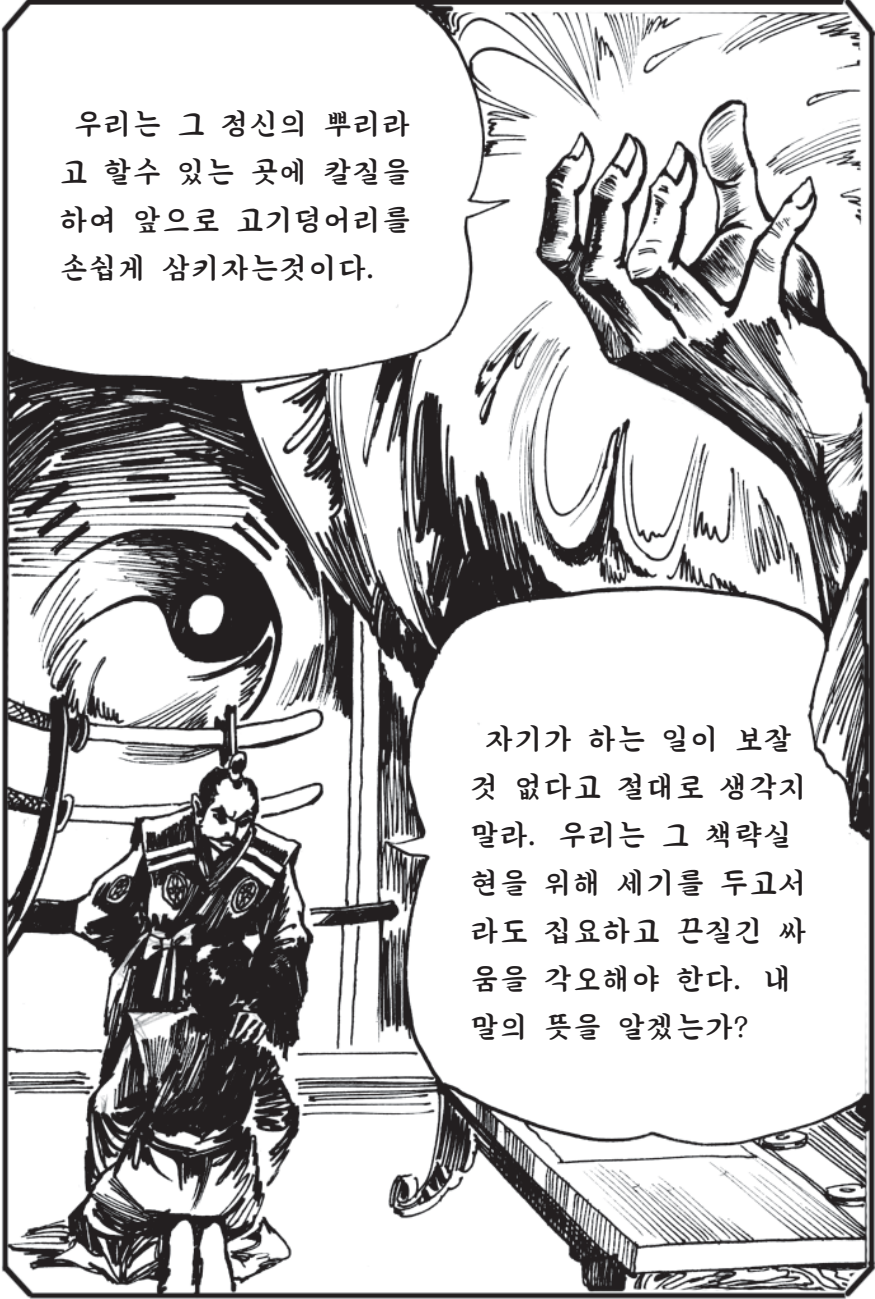
!!!

오빠 천천히 따라오세요. 내가 저 흔적을 따라갈테니…
그렇게 하자.

한편 왜구의 소굴
물에선 아직 소식이 오지 않았는가?
소식이 없소이다.

할수 없다. 주변바다를 살피면서 밀선 맞을 준비를 갖추라.
옛!

그래, 허리 부러진 범 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만 있을텐가요?

흥! 또 오금에 바람이 난 게로군. 해안에 고려수군 이 쫙 널렸는데 어딜 간다 고 그래?

가와시마상,
우리가 단지 고려
의 문화재가 탐나
서 희생을 각오하
고 여러차례 무
사단을 파견하는
건 아니요.

민족의 정신과 넋은 력사가 창조해놓은 그 모든 응집물속에 일일이 슴배여 후대에게 정신적유산으로 물려지는것이다.

우리는 그 정신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곳에 칼질을 하여 앞으로 고기덩어리를 손쉽게 삼키자는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보잘것 없다고 절대로 생각지 말라. 우리는 그 책략실현을 위해 세기를 두고서라도 집요하고 끈질긴 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내 말의 뜻을 알겠는가?

이건 내 뜻이기 전에 막부의 뜻이고 의지이다. 한달보름후 어김없이 인원들을 밀선에 태워보낼테니 그때까지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너희들이 성공하면 우린 경상도일대에서 크게 소리를 내여 주의를 끌어당기겠으니 다음단계에로 넘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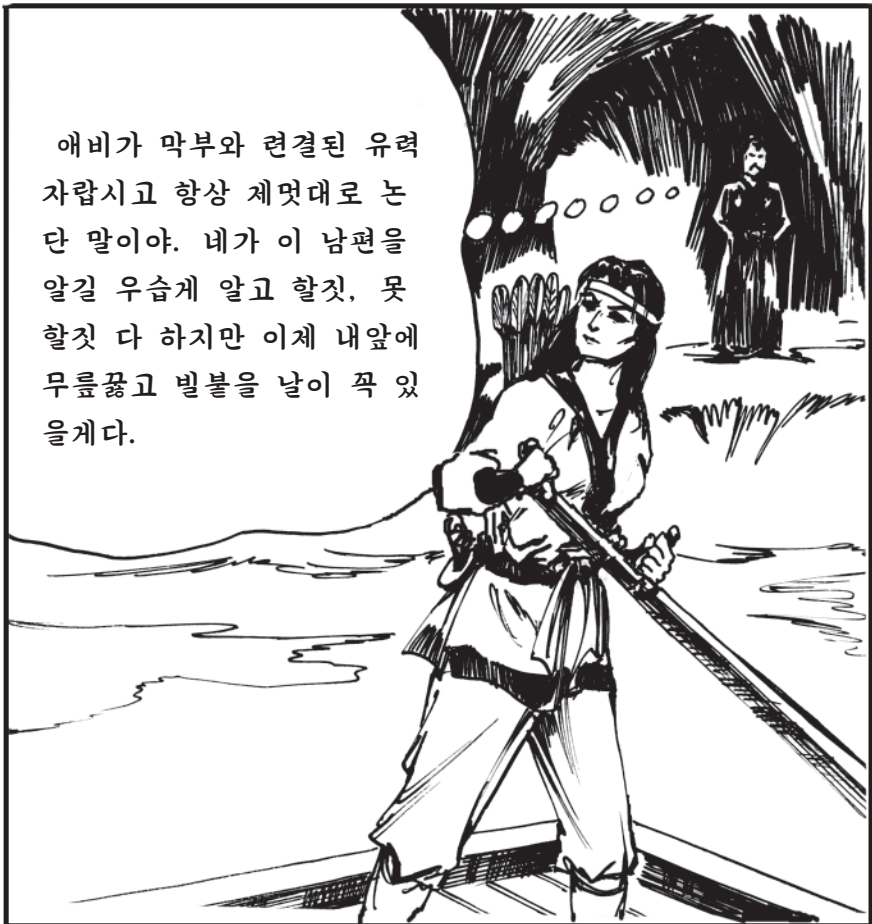
유끼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족제비》는 나의 첩자이니까 내가 그를 협조하여 잃어진 보물을 손에 넣도록 할테니 황산 비밀함에 쪽지를 보내거든 약속된 장소로 진출하세요.

애비가 막부와 련결된 유력 자랍시고 항상 제멋대로 논단 말이야. 네가 이 남편을 알길 우습게 알고 할짓, 못할짓 다 하지만 이제 내앞에 무릎끓고 빌불을 날이 꼭 있을게다.

백광동의 집
가와시마는 끈 떨어진 뒤웅박신세요.

고려수군이 곧 출동하여 짝새섬수역을 봉쇄할거요.

그러면 이 백광동의 정체도 탄로날것인즉 스즈끼상,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엔 우리끼리 보물짐을 찾아가지고 내륙으로 빠져서 쯔시마로 가는게 어떻소?

백상의 궁리가 그럴듯 하다. 문제는 두 년놈의 행처를 빨리 찾아내는것 인데 이렇게 한가히 있어서 되겠는가?

한가히 있다니요. 내평도 쪽으로 거미줄을 다 쳐놨수다. 새벽에 여기를 빠져서 그곳에 가면 될테니 마음을 놓으소.

귀신물목의 속내를 잘 아는 이 백광동이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인텝쇼.
그러면 《족제비》 패당도 알고있겠는데 빨리 가야 할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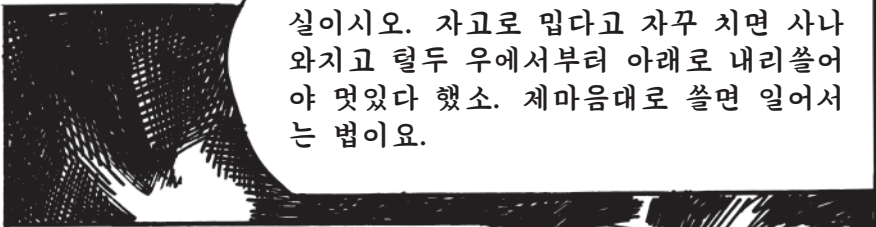
속담에 열번 빠른것보다 한번 뜨게 낫다는 말이 있수다. 그것들이 푹 익혀놓은 닭을 우린 가서 뜯어나 먹읍시다.
장담하긴 이르다. 이젠 그만하고 다음행동으로 넘어가자.

춘월인 선덕스님만 오시면 성의에 성의를 거듭하니 서방인 이 백광동이 너의 그 순정 받아본적 있었던가 다시 새겨보노라.

에그, 삶은 소대가리 웃겠네. 자기 정은 려염집 가시내, 수절한다는 과부, 유부녀간통에 다 써버리고 또 이 녀편네 정타령이시오?

흥, 또 족쳐보지 뭐. 이젠 너무 맞아 내 몸두 박달나무처럼 단단해졌는데.

뭐야?! 이년이!

아, 아, 연약한 녀자앞에서 이 무슨 행실이시오. 자고로 밉다고 자꾸 치면 사나와지고 털두 우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쓸어야 멋있다 했소. 제마음대로 쓸면 일어서는 법이요.
항차 벼슬길에 뜻을 둔 시주님이야 모든 사고와 행동을 불도를 깨치는 소승의 립장에서 참선하듯 해야 하지 않으시겠소?

내 오늘은 스님의 고견을 들어 참는다. 어서 나가!
흥!

백상! 큰일을 앞두고 자제하지 못하면 만사가 틀어지는 법이요.
에~ 그년때문에 술맛 잡쳤군.

꿀꺽
꿀꺽

후-!

오늘 별루
피곤한데…

어!~ 졸려-

꿀꺽 꿀꺽

벌컥

으흐

스님!
보고싶었네.

후

캉캉
우웅

핑

펑

《족제비》, 《암사자》
가 왔다.

부스럭
?!

엉?!

사람이냐, 귀신이냐?

호호
그새 담찬 사내로 자랐군요. 난 또 화닥닥 놀라 기절하든가 아니면 덮어놓고 칼을 날릴가 걱정했는데…
아-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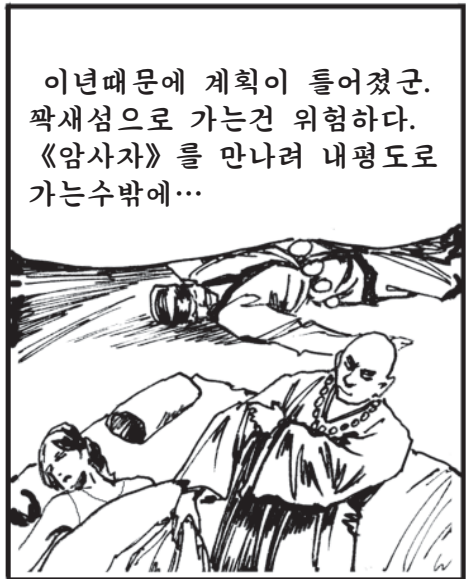
한 편
이제는 저자를 깨워야 할 것 같소.

흥, 그는 영원히 잠들었어요. 내가 수정과에 독을 넣었 거든요.

뭐야?!

죽이고 어쩐다는건가?

녀자는 사랑과 증오에서 잔인하다더니… 그런데 난 선덕스님도 아니고 또 고려사람도 아닌 왜인이요. 그래도 따라가겠소?

이년때문에 계획이 틀어졌군. 짝새섬으로 가는건 위험하다. 《암사자》를 만나려 내평도로 가는수밖에…

한 편
이 언덕에서부턴
발자국흔적이
보이질 않는구나.
저기 공지로 나
가서 숲속으로
들어가봐야지.

!!!

흐흐흐

네년이 끝내 내앞에 나타났구나.

백주에 국보를 강탈한 놈이 네놈이였구나.

흥, 누가 할 소릴. 내 오늘 네년의 주리를 틀어 솔직한 자백을 받아낼테다.

얏

휙!
...이얏
지끈

악
뻑

그래 맛이 어떠냐? 어서 보물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건방진 수작 말아! 셈을 치르기 전엔 어림도 없을걸.

덤빌테면 덤벼라.
이년아! 오늘 네년의 피를 보고야말테다.

헉

척!
캭

흑
야!
퍽!

찌끈

계집년이여서 살
살 다루었더니…
그래 맛이 어떠냐?

뭐라구? 이년이 아직 속은 살았구나.

이얏
?!! ?!!

악
악

어어쿠
?!
야!
이 《팔매검객》이 손이 근질거려 하던 참에 마침 일거리를 만났으니 먼지나 좀 털어볼가.
엉?!

이자식, 죽고싶어?
챙
휙
어디 재간껏
덤벼봐라.
이 야
야!
휙
휙

야 이!
서라!

팍! 치잉

얏!

쿵

그래, 너희
들 칼쓰는
재간이 그게
다냐?

용기가 있다면
사내답게 일어서라.
야!
장사님!
휘-잉
서걱

으으

손목이 잘 리우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어서 썩 사라져!
어디 두고보자.

삼매! 장사님!

담찬 그대 모습 못보는 듯 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만나게 되였소그려. 다친덴 없소?

없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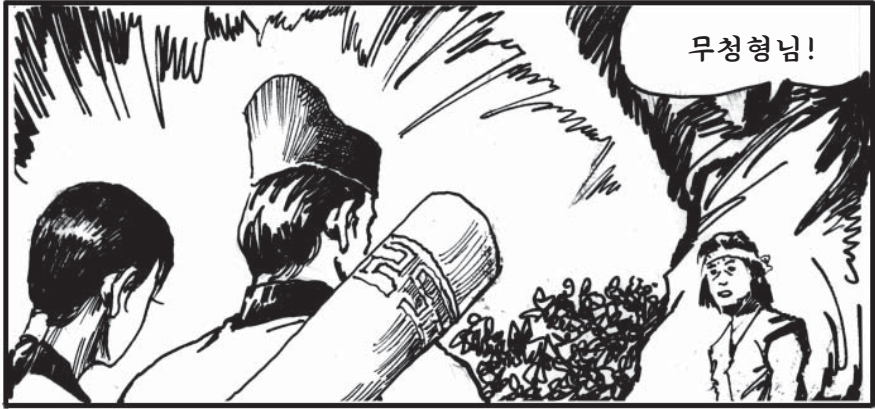
가만, 저것 보지. 입귀에서 피가 나는걸.
흑

내 곳곳에 나붙은 방을 보았소. 그러나 믿지 않았지.

아무렴, 세상이 뒤바뀐
다해도 그대가 어찌 역적
이 될수 있단 말이요.

흑흑

한이오이다. 한이오이다. 부
모님들이 살아계실적 그렇게도
괴롭히던 그 원쑤, 그 백광동
이란 놈이 왜구들과 짜고 국보
를 도적질하구선…

절뚝
진정하오. 진정해. 그런데 해남동생은 왜 보이지 않소?
어제밤 짝새섬에서 보물배를 탈취해가지고 놈들의 소굴을 벗어날 때 화살에 맞아 다리와 어깨에 부상을 입었소이다.
그런즉 장사님, 우리를 도와주사이다. 이자 나와 싸우던 그놈들이 보물짐을 강탈한 놈들이오니 어서 그놈들을 잡아 보물짐을 찾도록 도와주사이다. 그래야만 관가를 찾아가 역적죄명을 벗을수 있나이다.

무청형님!

아, 해남동생!

고생이 많았겠소. 저런, 상처가 심하구만.
그까짓 상처야 뭐라우.

걱정들 마오. 우리 셋이 힘을 합쳐 보물짐도 찾고 역적의 죄명도 벗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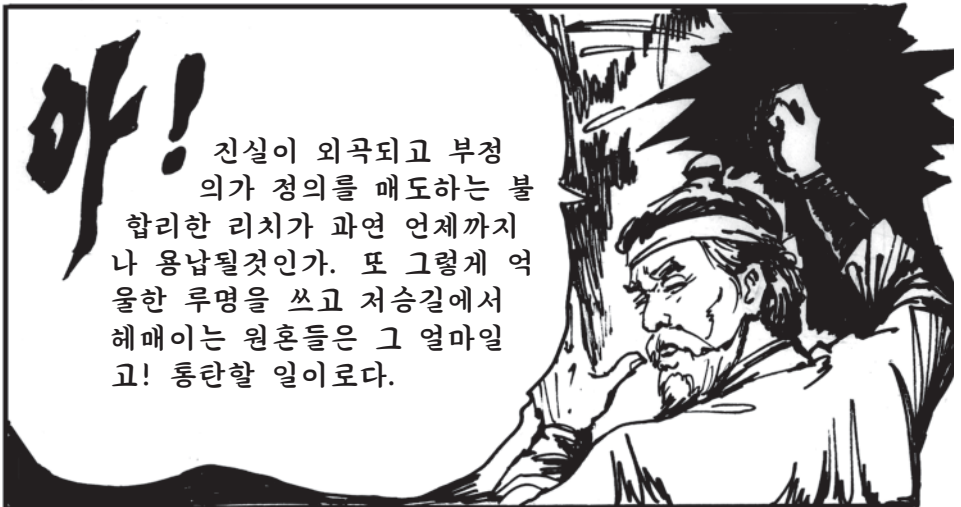
야, 이놈들,
꼼짝 말고 게 섰거라!

너희들 차림을 보니 화
적이 분명하구나.
청
화적? 그 말을 수정시
켜주지. 우린 사멸되여
가는 정의를 수복하
기 위해 싸우는 의
로운 사람들로서
의적은 될지언정
화적은 아니야.
네년놈들처럼 왜구
와 작당하여 국보를
도적질하는 매국노는
더욱 아니지.

가만!

아니? 도사님이?!

삼매, 해남이, 황산에서 마지막 수련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봐라. 어서!

옳은 정신에 바른 육체를… 항상 의를 중히 여기고 주색 재권의 흑심을 경계하며 사치하지 말라. 약한 사람편에 서서 싸움을 말리며 싸움에서 고정자세를 버리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전술로 상대의 약점을 가려 일격에 타승할지어다.
항상 의를 중히 여기고 사치하지 말라 했거늘 당초의 맹약을 어디다 버리고 비루먹은 도적, 역적의 탈을 쓰고 나타났느냐. 어서 이실직고하지 못할가?

도사님! 억울하오이다.
원통한 이 심정 알아주옵소서.
…

일인즉 그렇게 됐단 말이지.

어서 내 뒤를 따라 오거라.
굴안으로 들어가자.

동굴안
자! 이리 와서 보물짐이 그대로 있는가 봐라.

도사님, 이젠 됐소이다.

이 사람들이 벼슬아치들의 불미스러운 짐으로 오인하고 날라왔다. 나라에서 찾는 보물이니 이것을 바치고 어떻게 너희들의 역적루명을 벗기겠는지 의논들 해보자.

우리가 죄인으로 몰려 피해를 입더라도 령동관가에 보물짐들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것이 옳은 처사일줄 아나이다.

랑자! 피차 나라에 죄없이 역적으로 몰리긴 같은 처지라 그 보물을 바친들 그대들의 충정이 옳게 평가될것 같으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바르게 쓸상싶소? 차라리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의롭게 쓰는것이 어떠하오?

삼매! 이자 그 말이 옳을듯 하다. 보물을 바친다고 량반님네들이 우리를 사람취급해 줄것 같애? 또 우리의 처지도 달라질수 있나 말이야? 어떤 감투를 씌워 죽이든가 옥에 처넣고 보물은 나라에 바치지도 않고 갈라내여 제 배속을 채울지 어떻게 알아.

그럴바엔 여기 형제분들과 뜻을 갈이하고 백성들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자구.

그 총각의 말이 옳소.
벼슬아치들의 그 먹통갈은 심보를 몰라서…

그러면 안되오이다. 저… 장사님은?

나도 여기 모인 여러 형제분들과 처지가 다를바없는 비천한 몸으로서 형제들의 그 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요. 그러나 생각들을 해보시오. 여기 이 보물들로 말하면 값진 물건들이기 전에 선조들이 남겨준 재보이며 국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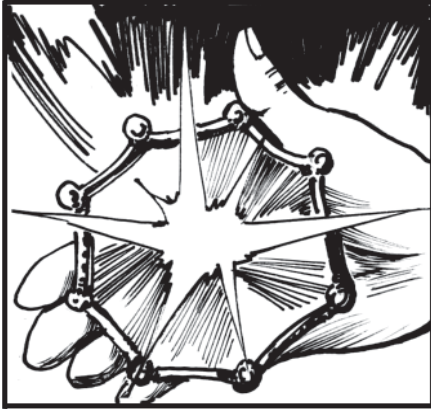
국보란 우리 대뿐만아니라 대대손손 물려가며 전해져야 할 귀중한 유산이요.

그러니 이 보물들은 마땅히 나라의 창고에 고스란히 들어가야 하며 단 한점도 류실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것이요. 설사 목숨을 바친대도 말이요. 그렇게 하는것이 량반이나 백성, 아니 이 땅에 태를 묻고사는 모든 사람들이 응당 지켜야 할 애국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오.
그래서 내 생각엔 나라님께 장계를 올리고 조정의 령에 따라 국고로 이관하자는거요. 그것이 검은 손길을 피하는 합리적인 방도라고 생각되오.

음! 젊은이의 생각이 뜻이 있고 타당성있어 보이긴 한데 나라님껜 어떤 경로로 장계를 올린다는건가?
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몸인지라 각처에 소식통들이 있어 조정에서 파한 안찰사의 행적을 밟으면 능히 전할수 있사오니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사이다.
모두 들었느냐? 나라를 위한 마음이 어떻게 불타야 하는가를 말이다.

애국에는 귀천이 따로 없다. 나라의 록봉을 더 먹었다 하여 그 애국은 무거워야 하고 빈한자의 처지라 가벼울법 있으랴. 나라는 곧 우리가 사는 집과 같다. 집이 없이 떠도는 인간의 설음 어떤것인가는 너희들이 더 잘 알고있을진대 나라에 닥친 일을 두고 어찌 무심할수 있겠는가. 백성 한명한명이 나라의 드팀없는 성돌이 될 때라야 고려사람의 본분을 다 했다 할수 있느니라.
명심하겠소이다!

호,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여기서 뭘하오?

어마나, 장사님이 여길 어떻게?

그런데 왜 이런 숲속에 홀로 나와있소?

이 바위밑에다 《5도국고략도와 국보명세》라는 비밀책자가 든 보물함을 따로 묻었소이다. 개중에 딴 마음을 품은자가 있을런지 알겠소이까. 왜구들도 이 함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더군요.

그건 정말 잘한 일이요. 누가 본 사람은 없소?
도사님과는 따로 론의가 있었소이다.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해두오. 자, 그럼 내려가기요. 도사님이 저녁을 잘 차리도록 분부했다오.

삼매!

아, 해남동생. 내 숲속구경 나 왔다가 삼매를 만나 시국을 론하는 중이요. 어서 만나보오.

씩씩
해남오빠! 왜 성났어요?

몰라서 물어. 물론 무청형이 훌륭한 사람이란걸 나도 안다. 그러나 삼맨 내 사람이야. 언제부터 좋아했다구. 바다가 모래불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각시놀이하던 그때를 다 잊은건 아니야?

바보같이 왜 이럴가? 난 무청의 나라를 위하는 호협한 의기를 존경할뿐이예요. 범상치 않은 장부로 말이예요.
그리고 난 오빠의 마음에 동심에 쌓던 모래성이 아니라 나라와 큰일을 생각하는 철옹성이 쌓아지길 바래요.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앞에 효도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내 꼭 삼매가 바라는 그런 남자가 될테야.

난 해남오빠가 제일 좋아요.

어서 내려가서 상처에 파찜질을 더 해야겠어요. 쇠상처는 그래야 독을 쓰지 않아요.

아픔이 퍽 덜어졌어.

오빠, 내가 업어줄가?
그만둬. 그러다 엎어지자구그래.

내 이때껏 오빠등에 업힌적 이 한두번이였어요? 인정도 품앗이라는데 지금껏 내 응석 잘 받아준 오빠를 오늘은 내가 업어드리겠어요. 어서요.

안된대두. 어떻게 사내가 가시내등에 업힌다 그래?
절뚝거리면서 무슨 내우예요. 무조건 업혀요. 빨리요.

허허허. 이런 성화라구야. 그럼, 한번 업혀봐?

오빠, 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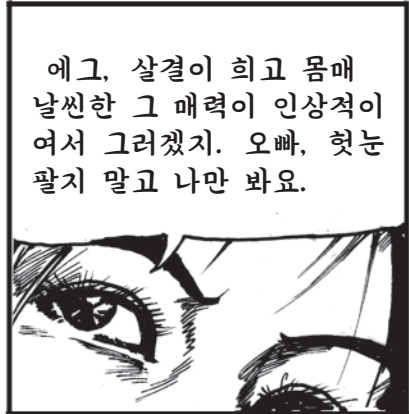
하하하

호호호

스적스적

어서
내려놔.

늘 도사결에 있군 하는 녀무사인데 웬 중과 숲속에서 만날가?

난 저 녀자를 어디서 꼭 본것 같애. 어디서 봤을가?

에그, 살결이 희고 몸매 날씬한 그 매력이 인상적이여서 그러겠지. 오빠, 헛눈팔지 말고 나만 봐요.
허허. 그러지.
쉿!
부스럭

팔자수염?!

어쨌든 이상한 사람들이 지? 빨리 가서 도사님에게 알아봐야겠어요.

응! 자! 빨리.

동굴안
봉아는 내가 선창에 있는 사공령감한테 보냈다. 그런데 중은 웬 중이란 말이냐?

팔자수염? 음, 호진이가 또 불이 달린게로군. 봉아와 호진인 둘다 작년초에 황산에 들어와 알게 된 애들인데 불쌍한 인연들이지. 서로 사랑하는것 같은데 봉아가 웬 중과 같이 가니 시샘이 동해 따라갔을수 있지.

이 섬엔 도사님과 함께 왔소이까?

아니지. 난 여기 제자들이 무술교련을 봐달라기에 달포전에 왔고 봉아와 호진인 엊그제 새벽 음… 그러니 너희들과 결국 함께 온셈이구나.

황산에 갔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더구나.

그들을 잘 알고있소이까?

봉아는 자기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죽인 감무놈을 복수하겠다고 황산에 들어왔고 호진인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뒤 나에게 왔지. 왜? 뭐 의심되는 점이라두 있느냐?

경각성을 높이는건 좋은 일이지만… 하여간 은밀히 알아보자.

오빠 또 공연한 소릴… 아까부터 그러더니…

녀자가 남자를 잘 보듯이 남자는 녀자를 잘보는것 아니겠어?

파수를 더 강화하고 무청이 말대로 국고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칠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더 생각들을 해보자.
알겠소이다.
자, 그럼 저녁들이나 먹자.
령동관가
아뢰오!

아뢰오. 거짓정보를 발설한 샘천골 호장을 대령시키러 갔다가 끔찍스러운 살인현장을 목격하였은즉 상황을 보고드리이다.

뭣이!

어서 사실 전말을 고해라.

집에 들어가본즉 백호장은 입으로 피를 토하고 죽어있었고 그의 부인은 알몸뚱이 시체로 되여있은즉 간통한자가 목을 눌러 죽인것으로 판명되옵나이다. 그리고 집을 수색한 결과 왜구의 물건짝들과 보물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였음을 아뢰오.
음, 그놈도 왜구들과 한짝이 되여 움직인 놈이 분명하다. 그러니 뒤가 켕긴 왜구들이 가만둘리 없지.
여봐라, 병부는 기찰선들을 짝새섬 남쪽으로 돌려 속히 섬들을 살살이 뒤짐하여 왜구들의 종적을 찾아내도록 할지어다.
예-잇!

내평도
하하하!
자, 마음껏
들라구요.

부지직
부지직

흐하하

그래, 련락은
띄웠소?
초저녁에 스즈끼를 통해 련
락을 띄웠으니까 지금쯤 밀선
을 타고 짝새섬에 당도한 증
강된 력량이 여기로 오고있을
거예요.

유끼꼬, 이번 일이 끝나면 쯔시마의 쯔리요리로 나를 데려가 같이 살아주겠소? 난 그대를 위해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렀소. 곧 나의 정체도 드러날판이니 약속대로 데려가주오.

호호. 그건 념려마세요. 작년 단오날 방종한 당신이 고려처녀로 가장한 나에게 반해 미칠듯 덤비다가 우리 소굴에 잡혀왔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때 진짜 나에게 반해서 우리의 요구에 응했는가요 아니면 목숨이 아까와 그랬는가요?

불쾌한 그때 이야긴 왜 또…
아, 어서 이야기해봐요.

그걸 모르겠소? 그야 물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라지경도 초월케 한것이지 죽음이 두려워 그랬겠소.
나도 그렇게 믿고싶어요. 당신은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걸요. 생긴것도 그래 결패있고 정열적이고 남아다운 기질은 사무라이들의 무사도정신을 무색케 하거든요. 내가 바라는 남자는 바로 당신이예요.
야!
내 사랑 유끼꼬.

동굴안
쿨
쿨
드르렁

피곤하겠는데 그만 쉬지.

괜찮소이다. 그런데 마음이 별로 불안한게 잠들것 갈지 못한 밤이오이다.
며칠동안 너무도 긴장한탓일거다. 온갖 잡념을 잊고 어서 잠을 청해라. 그래야 다음일도 잘 되는 법이다.

알겠나이다. 도사님, 그런데 여기 모인분들은 어찌하여 부모처자 다 버리고 산중에 들어와 몸을 맡겼나이까?

매 사람 일일이 알아보면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수난의 체현자들이라고 할수 있지. 어쨌든 이러저러한 죄명을 쓰고 세상눈을 피해다니는 처지지만 모두 정의에 불타고 의협심이 많은 남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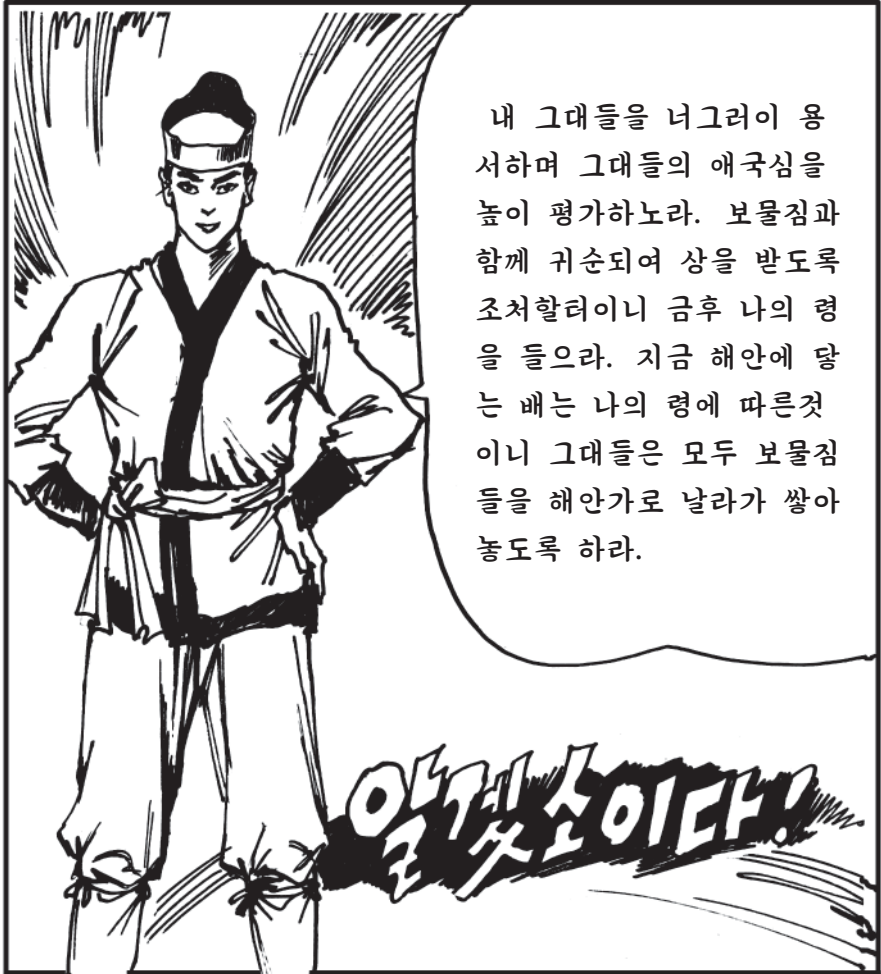
도사님!
??

모두 일어들 나거라! 무장을 잡구 해안가로 가야겠다.

본관은 조정에서 파한 안찰사로서 이시각부터 그대들의 모든 행동은 나의 령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된다는것을 알리는바이다.

자, 보라. 이것이 나를
증명할것이다.
웅성 웅성

안찰사

조정에서 파한 안찰사님을
몰라본 소인들의 죄 엄히
다스리고 다음령을 주소서.

내 그대들을 너그러이 용서하며 그대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노라. 보물짐과 함께 귀순되여 상을 받도록 조처할터이니 금후 나의 령을 들으라. 지금 해안에 닿는 배는 나의 령에 따른것이니 그대들은 모두 보물짐들을 해안가로 날라가 쌓아놓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내 그대들의 충의에 고개를 숙이게 되오. 입궐하면 전하께 아뢰여 그대들의 루명을 벗기고 등용케 하리다.

안찰사님의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은혜랄게 뭐 있소. 내 삼매가 짠 알뜰한 돗자리 내내 걸어두고 보면서 그네들의 생각 잊지 않으려오.

자, 그럼 삼매, 따로 건사해둔 보물함도 어서 가져오우.
알겠소이다.

부스럭

호호호!
이제야 오셨구려. 그냥 가져가려다가 삼매의 립회가 있어야겠기에 기다렸지.

봉아?! 넌 도대체 누구냐?
나? 너희들 짝새섬에서 날 본 생각이 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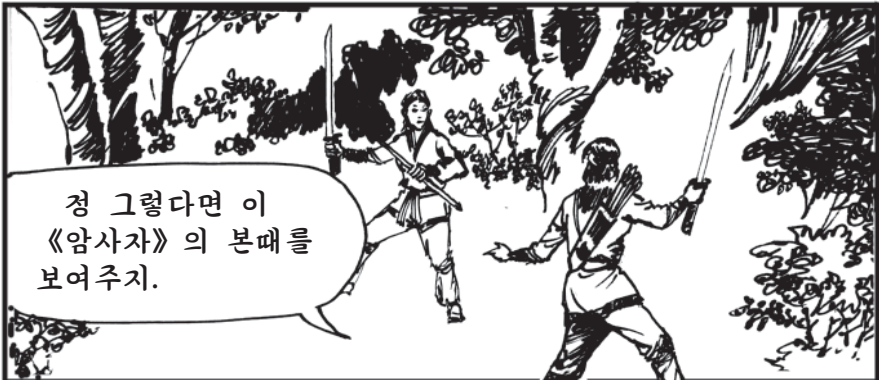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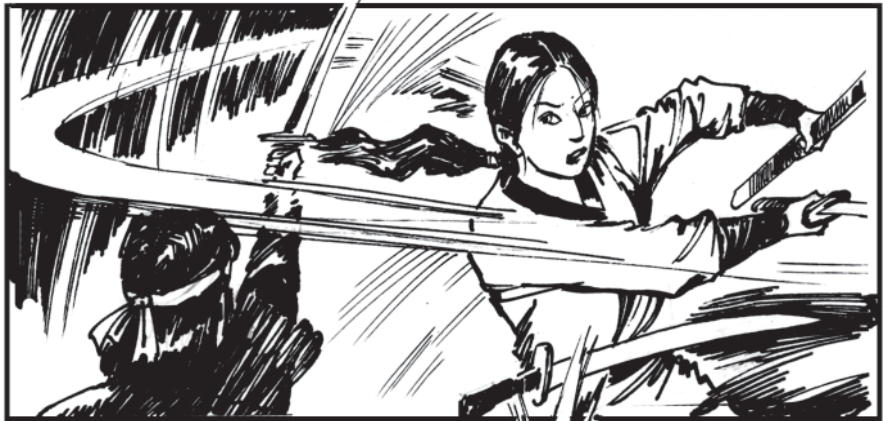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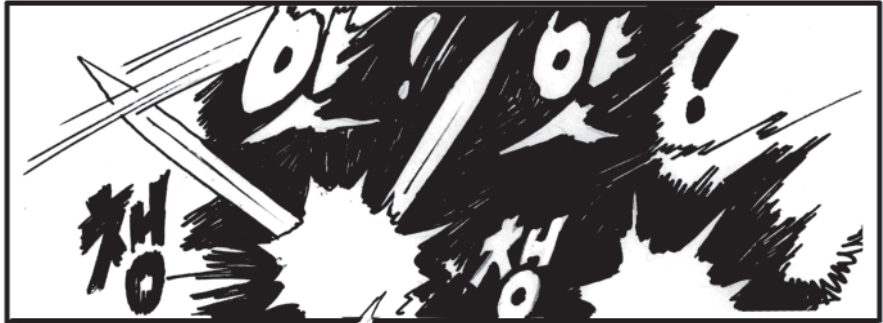
아!
해남오빠 말이 옳았구나. 내가 왜 이 왜년의 정체를 미리 가려보지 못했을가.

칭-!
이 천하에 날도적갈은 왜놈 쪽발이년아! 내 오늘 네년에게서 부모들이 흘린 피값을 받아내고야말테다.

정 그렇다면 이 《암사자》의 본때를 보여주지.

얏! 얏!
챙
챙

얏
탁!

이년!
댕
쩍
휙
휭
쾅

삼매, 우린 애를 낳을수 있는 녀자들이다. 꼭 죽일내기를 해야 하니?
그래, 바로 너 같은 년의 몸뚱이가 없어져야 그 저주로운 왜놈의 씨종자가 생겨나지 않을거다.

아

흐흐흐

삼매! 그리
놀랄건 없어.

사람은 환경에 순응할줄 알아야 해. 사람이 아무리 버드럭거려도 자연의 힘을 당할것 갈애? 춘하추동의 리치에 도전할수 없는것처럼말이야. 그러니 닥치는 환경에 맞춰 편안히 살아야 하지 않을가?

삼매, 나랑 갈이 쯔시마로 가자구. 거기 가면 우리 고려인들두 많구 또 나나 이 유끼꼬아씨가 부러운것없이 만들어줄거야. 괜히 여기서 역적으로 몰린 몸 담글데가 없어 떠돌아다니지 말구. 그렇게 하지?

아가릴 닥쳐라! 사람은 정으로 살고 의리로 죽는 법이다. 분하구나. 너같은 놈이 나라의 록을 타먹으며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모독해왔으니 죽은들 네놈의 혼백 지하에서 받겠느냐, 구천에선들 받겠느냐. 이 더러운 놈아!

《족제비》, 물러서요. 당신을 모독한 년의 몸뚱이를 칼로 탕쳐서 분을 삭혀드리겠어요.

이년, 어서 무릎을
꿇어라. 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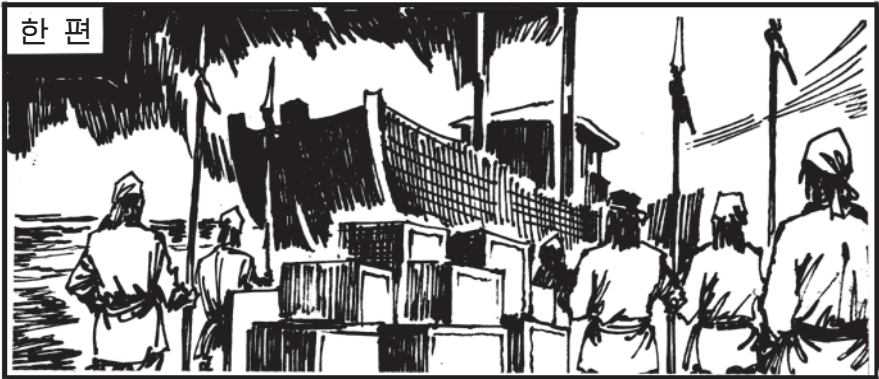
흥,
어리석은 수작
하지 말라.

삼매!
피하라.

한 편

와!

쏴!

악!
왜구들이다!
야! 야
악
으악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숲 속

삼매, 너의 목숨은 담보한다. 목숨이 중하거든 물러서라.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죽은자가 산자더러 생을 운운하는것부터가 가소롭다.

받아라! 얏!

챙
탱!
아

아니?
송무청?

에익!
받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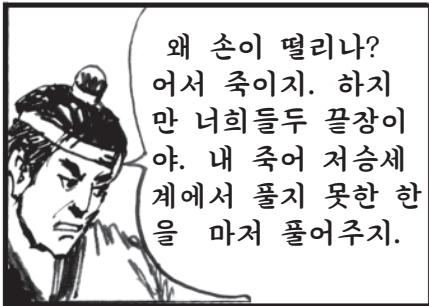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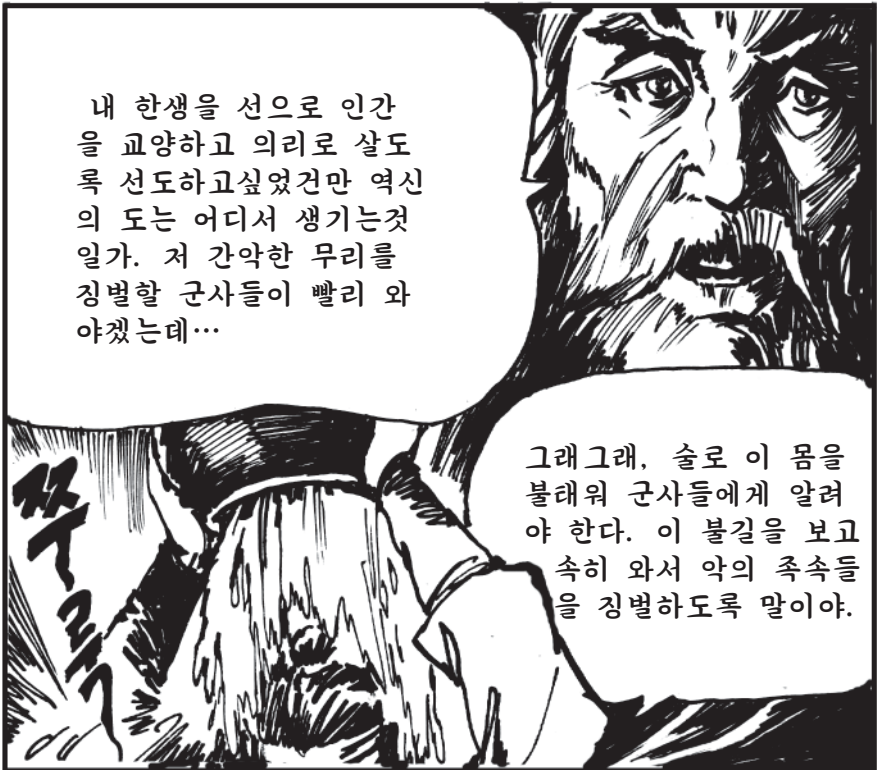
핑

헉
푹

왜 손이 떨리나? 어서 죽이지. 하지 만 너희들두 끌장이 야. 내 죽어 저승세 계에서 풀지 못한 한 을 마저 풀어주지.

천상의 귀신들 두 치를 떨며 네놈의 혼백을 지경밖으로 내 버릴거다.

친구, 정신 차리라구.

그 왜년의 정체를 가려보지 못하고 이따금 내앞에 나타나 던져주는 미사려구에 홀리워 행복을 꿈꾸었으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소. 삼매! 보물을 꼭 지켜내구… 역적의 루명도 벗으라구-
아!

그래요. 지켜 내야 해요. 오빠, 이 보물함을 부탁해요.
삼매!
바다가
악
얏!

내 한생을 선으로 인간
을 교양하고 의리로 살도
록 선도하고싶었건만 역신
의 도는 어디서 생기는것
일가. 저 간악한 무리를
징벌할 군사들이 빨리 와
야겠는데…

그래그래, 술로 이 몸을
불태워 군사들에게 알려
야 한다. 이 불길을 보고
속히 와서 악의 족속들
을 징벌하도록 말이야.

쭈르륵

팍

으악!

으으ㅎ
무서운 일이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정신이 저런 것이라면 우린 천년, 만년을 싸워도 이 나라를 이길수 없다.

야마모도! 저 불길이 넘어지도록 화살을 날려라. 빨리 불을 꺼버렷!

핑
핑
핑

부지지직
부지직

저 불붙는 곳이 내평도가 아니냐?
그렇소이다.

도사님!

이 원쑤놈들아!

으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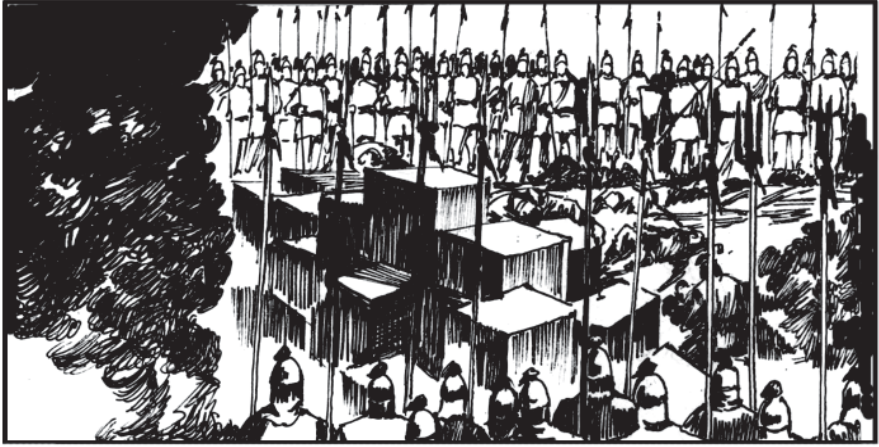
야! 마지막놈이 다. 저년을 칼탕 쳐 죽여라!
챙
얏!
으악
악

퍽
으악

에익, 이 밥통들. 모두 물러섯. 일제히 화살을 날려라.

으악!
고려수군이다.~

적선을 향하여 쏴!
발포!
콩! 콩

악

모두들 생각하라. 그대들
이 살아 숨쉬는 이 땅이,
또 모두가 귀중히 여기며
바라는 행복과 래일의 꿈
이 바로 이들과 같은 평
범한 인간들, 뜨거운 심
장과 량심을 지닌 사람들
에 의해 지켜진다는것을!

그이후 고려에 대한 왜구의 침입은 그칠새없이 계속되였으니 가렬한 싸움마당의 앞장에는 언제나 용맹한 무사 장해남이 서있었다.